

《그림책의 이해 1,2》를 쓴 김세희, 현은자 씨(왼쪽부터)

“그림책은 ‘가르침’ 아니라 ‘소통창구’”

그림책 의미 곱씹은 10여 년의 성과

그림책 마니아들 막힌 속 뚫어준 '사건'의 경위

'황금기'라 하면서 이렇다할 연구서 한 권 없더니... 그림책 관련자들은 혀를 끌끌 찬다. 그런데 갈등을 다 해소하지 못해 아쉬워했던 마니아들이 맨발로 달려가 반색할 '사건'이 터졌다. 총 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굵직한 연구서 《그림책의 이해 1,2》의 출간은 아직은 빈약한 국내 그림책 연구시장에 단비 같다.

방대한 볼륨만으로도 노고를 인정해줘야 할 판인데 엄정하고 까다로운 학자적 태도를 견지하며 문장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독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두 저자는 사건 경위를 설명하기에 앞서 “행복하다”는 근황부터 알렸다. 제대로 된 그림책 자체도 번역, 출간되지 않았던 20년 전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의 관심과 애정은 거듭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다.

어린이문학교육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세희 씨, 그리고 이전 회장이면서 김씨처럼 강단에서 그림책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현은자 씨가 이번 책을 내놓기까지 10여 년이란 꽤 긴 시간이 소요됐다.

“교육학과 선배였어요. 당시에 얼굴만 알 정도였죠. 그런데 이후

행보가 비슷했던 거 같아요. 저(현은자)는 미국에서 유아 언어와 관련된 그림책 박사논문을 썼고, 김 선생님은 전래 동화 관련 논문을 쓰셨죠. 또 나중에 보니 성균관대학교에서 같은 분야 강의를 하게 됐더라고요. 각각 유아언어, 문학 분야를 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친분을 쌓았지요.”

지향점이 같으니 자연스럽게 동행할 일들이 많았다. 그러던 중 각자 학업의 공통분모, 곧 그림책 연구를 하면서 관련자들과 함께 어린이문학교육학회도 설립했다. 각자의 관심 영역에서 저술, 번역활동을 해오면서 《어린이의 세계와 그림 이야기책》도 책도 함께 펴냈다. 이번 책은 두 사람이 두 번째로 호흡을 맞춘 공동 저작물로 그간에 써둔 그림책 연구논문, 서평 등을 비롯한 글들을 정리하고 다듬은 결과물이다.

그림책은 대화의 매개체, 교훈서 기대하면 '독보다 실'

그림책 작가 울리 슈레비츠의 그림책 정의를 인용, 스토리북과 픽처북의 개념 설명으로 서두를 열었다. 그런데 왜 하필 두 사람 모두 스토리북이 아닌 픽처북을 택하게 됐는가가 의문이다. 자녀를 양육하며 자연스럽게 눈을 그림책 쪽으로 돌렸다는 대답을 예상

했으나, 그게 아니었다. 저자들 모두 자녀가 있는 주부이지만 그림책에 대한 관심은 출산 이전부터 갖고 있었다.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던 김씨가 먼저 “미대에 가고 싶어 할 만큼 그림을 좋아했다”고 말을 꺼내자 현씨가 “선생님도 그러셨어요?”라며 놀란다. 두 사람 모두 몰랐던 사실이라며 그림과 문학을 유난히 좋아했던 학창 시절 성향까지 닮았음에 반가워한다. 미술과 문학의 조우란, 이들이 책에 적은 그림책 정의와 거의 일치하는 표현이다. 그들은 글 읽는 법, 그림 읽는 법을 두루 알아야 그림책 한 권을 제대로 독파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림책 역사 기술에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번 책에선 특히 “그림책이 얼마나 독특한 예술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논지를 펼쳤다. 그림책의 정의부터 역사, 그 언어만의 특성, 장르별 성격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을 펴낸 계기를 굳이 따지자면 사실 몇 가지 아쉬움을 말할 수밖에 없다. 현 씨는 지금의 그림책 시장은 ‘소화불량’ 상태라고 점검한다. 몇백 년 동안 축적된 서양 그림책 역사를 15년 만에 소화하면서 무리가 없었다면 거짓말이라는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그림책 언어를 읽는 방법을 몰랐고, 그것을 어떻게 책으로 들여와야 하는지도 몰랐죠. 그림책을 좋아하는 일반 대중들에게 일단 그림책이 무엇이고, 그것 고유의 언어를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과거엔 원화가 손상되는지도 모르고 판형을 자르고 그 책들을 한 질로 묶으려 했던 시절이 있었죠.”

저자들이 말하는 그림책 언어는 교훈 전달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은 일단 그림책을 독특한 예술장르로 발전시킨 작가들은 좁은 의미에서 ‘교육적’ 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벗고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현한 이들이라고 본다. 그림책은 가르침이 아니라 “대화의 매개체 혹은 소통창구”라고 보기 때문이다. “밥 먹자, 씻자, 이 닦자” 등을 추려보면 엄마와 아이 사이의 대화는 지극히 단순하다. 한계가 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림책 한 권이 놓이면, 더욱 다양한 대화가 오갈 수 있다. 어휘가 확장되고 정서적 유대가 깊어진다. 글만 대충 읽고 교훈거리만 찾아가려는 부모들은 100 중 10도 못 건져가는 셈이란다.

소개할 만한 우리 작가들 있어 든든… ‘이런 역사서 2, 3년에 한 권 이상 나와야’

그림책 고유의 의미를 전달하고 제대로 된 그림책 읽기를 알리기 위해 쓴 이번 그림책 역사 개론서는 두 사람이 분야를 나눠 썼다. 현씨가 그림책의 성격과 판타지 그림책, 사실주의 그림책, 정보 그림책, 영아 그림책, 알파벳 그림책, 성경 그림책 부분을, 김씨가 그림책의 역사와 옛이야기 그림책, 운문 그림책 그리고 영상 매체와 그림책을 집필했다. 그림책이 독특한 성격을 드러내는 총체적인 예술이니만큼 문학, 예술, 심리, 육아 등 다양한 영역의 시야와 해석력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가령 《지각대장 존》을 읽을 때 등장인물들의 심리, 상대적 지위, 관계성과 그림의 상관 관계를 발견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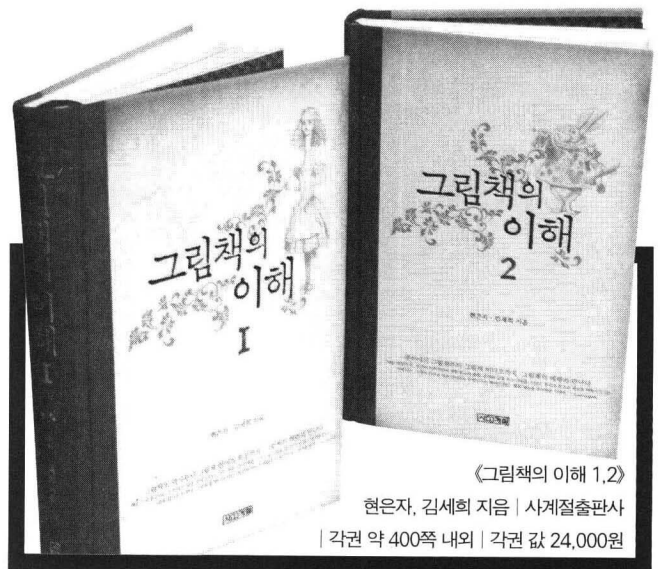
그 참맛을 느낄 수 있다. 이억배, 한병호, 권윤덕 등 우리 작가 24명의 짙막한 작품론을 완성하기 위해선 그림책을 보는 안목에다 취재력도 요구됐다. 녹록찮은 작업이었지만 저자들은 특히 우리 작가들을 소개한 대목에서 지면에 소개할 만한 훌륭한 작가군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뿌듯하고 즐거운 일이었다고 밝힌다.

“그림책은 결코 쉽지 않아요. 저희 연구자들도 그렇지만 사실 책을 만드는 편집자의 역량도 무척 중요하지요. 다행히 모리스 샌닥을 도운 기획 편집자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편집진들이 출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림의 최정선 씨, 돌베개어린이의 문승연 씨 등이 그런 인물들이죠.”

책을 준비하면서 감동적인 순간도 많았다. 원고를 넘기고 난 후 원고 안에는 원서로 표시, 소개된 책이 그 사이 국내에서 출간돼 나온 걸 보면서 반가움을 금치 못했다. 또한 업데이트되는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땐 어깨춤이 절로 났다. 물론 역사 서술에서 유럽을 놓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이는 차후 숙제로 남겨둔 상황. 그림책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때이니만큼 저자들은 이런 역사서가 2,3년에 한 번씩은 나와야 할 것 같다는 뜻에서 앞으로도 부지런히 관련 연구를 축적할 계획이다. 참고로 ‘연구 담론’에 목말라했던 그림책 관련 인력들에게 ‘해갈’의 기회를 선사한 저자들이 바라는 바 있다면, “국내에서 좋은 그림책이 많이 출간되고, 해외에서 우리 작가의 수상소식 등이 예사로울 만큼 많이 들려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림책 시장의 황금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진 모르겠지만 우선 청소년층까지라도 확장됐으면 합니다. 종종 좋은 그림책은 뭐냐고 물어나선 정해 달라고들 하시는데 좋은 그림책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감동을 준 책이거든요. 부모님이 자신에게 감동을 선사한 책을 아이와 함께 읽는다면 그만큼 좋은 책이 없을 겁니다.” **▶▶**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그림책의 이해 1, 2》

현은자, 김세희 지음 | 세계출판사
| 각권 약 400쪽 내외 | 각권 값 24,000원